

식민시대와 문학

김 중

서울대, 중남미문학

중남미는 15세기 말부터 3세기 동안 스페인 제국의 식민시대를 맞아 사실상 그들 고유의 문화, 특히 잉카와 아스테카 제국의 문명을 잃게 된다. 정복자들은 중남미를 점령한 후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그들 특징의 사회 체제를 중남미 전체에 확산시켜 나아갔다. 정부와 교회는 진정한 카톨릭 신앙과 안정된 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문화에 적용할 수 없는 유목민이나 외진 지역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지역의 정치적, 종교적 생활을 제도화하였다.

1533년 무렵 스페인 제국은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었으며 그 체제는 18세기 말엽까지 유지되었다. 스페인 제국은 누에바 에스빠냐(현 멕시코)와 페루에 부왕청을 설치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남미까지 총괄하였다. 이러한 신대륙의 모든 기구는 1524년 설립된 최고 기구 척무원 el Consejo de Indias에 의해 강력히 통치되었는데, 이 최고 기구는 직접 국왕이 총괄하였다. 스페인 식민지의 고위직 관리 역시 모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목적하에 스페인 출신 사람들을 등용하였으며, 중남미에서 태어났지만 스페인 혈통을 갖는 중남미 시민들(끄리올요)은 단지 시의회나 시자치회 등의 하위직 관리로 채용되었다.

점차 교회는 본국의 이해 관계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교회는 영토의 방대함으로 부와 권력을 소유하였지만 신대륙에 거주하는 토착 인디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사명의식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인디오어를 배웠으며, 후세대를 위해 그들의 정복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문명과 역사의 유적을 복원하는데 힘썼다. 더 나아가 인디오들을 희생물로 만들었던 악습을 폐지하려고 정부정책과 대항하며 선교 및 학술활동을 전개하였다. 도미니코회 수사인 바르톨로메 Bartolomé de Las Casas(1474-1566)는 『아메리카 파괴에 관한 간략한 진술 Brevisima relación de la destrucción de las Indias(1552)』를 통해 산토 도밍고와 쿠바의 인디오들에게 취해진 조처(노예 매매제도)를 반대

했는데 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바르톨로메는 1550년에서 1551년에 발야돌리드 Valladolid에서 열린 그 유명한 논쟁에서 인디오는 천성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이성을 지닌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조치를 통해 그들을 법적으로 매매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537년 바르톨로메는 중앙 아메리카로 이주한 후 베라 빠스 Vera Paz (현 과테말라 북부)에 일종의 <기능 협회>를 설립하여 인디오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고 그들에게 수공업일을 가르쳤다. 이러한 선교사들은 중남미를 능력 있는 이상적 기독교 사회로 간주했는데 그것은 신대륙이 아직 유럽의 악습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중남미에서 교회가 끼친 부정적인 측면은 제한적인 정교 교리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재제와 극도로 편협한 그들의 견해에 있었다. 검열과 종교 재판은 신대륙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종교 재판의 주된 일은 禁書를 수입하여 읽는 사람들과 기독교 이전의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었다.

식민지 초기의 경제는 금, 은 등 광산 채굴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점차 대토지나 농장이 설립되어 半봉건적 의식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 발전은 스페인의 독점 정책으로 인해 저해되었으며 오랜 기간동안 스페인에서는 세비야와 까디스, 신대륙에서는 베라꾸루스, 까르파헤나, 뽀르또 벨요에서만 제한된 교역이 가능하였다. 비록 스페인의 이러한 독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의 정책과 다를 바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식민지의 문화생활 및 정신 생활에 있어 이와 비슷한 제약이 있었다. 그 결과 중남미는 유럽의 사상적 조류와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중남미 지식인들은 성직자, 선교사, 대지주 그리고 공직자들이었으며 이들의 교육적 책임은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다. 모든 교육은 고전적이며 스페인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송가, 서사시, 비가 같은 고전 문학이나 혹은 스페인에서 유입된 소네트, 전통 시가, 로만세, 코메디, 종교 희곡 el auto을 가르쳤다. 주제 역시 목가적 전원시, 사랑의 시, 종교적 소네트 같은 상투적 경향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전반적인 문학 작품에 직접적인 삶과 문학적 영감이 결핍되어 있는 이유는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스페인인들의 재능이 부족한 탓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작가도 지식인도 아닌 탐험가나 활동가였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16세기 초기에 많은 정착자들이 문학을 연구하고, 구띠에레 데 세띠나 Gutierre de Cetina(1520 혹은 1522-1577), 극작가 곤살레스 데 에슬라바 González de Eslava(1534-1601?), 소설가 마떼오 알레만 Mateo Alemán(1547-1613 이후) 등 유능한 스페인 작가들이 신대

륙으로 이주하였다. 스페인에서 이주한 작가들과 아메리카에서 출생한 스페인 혈통의 작가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문학적 범주에 식민지 현실을 끼어 맞추려 했지만 현실 상황 즉 식민지 정책은 그들에게 다른 길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정복자들은 인디오들에게 종교의 진의성에 대해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구의 문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신대륙에서는 소설의 수입과 출판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소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반면에 17세기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였던 희곡은 종교적 교화의 수단으로 종교적 주제에 한정되어 발달하였다.

정부의 검열과 대중적 요구로부터 가장 제약을 적게 받았던 시분야는 가장 번성한 장르였다. 시인들 중 누에바 그라나다 출신의 환 데 까스텔야노스 Juan de Castellanos(1522-1627)와 멕시코 출신의 베르나르도 데 발부에나 Bernardo de Balbuena(1568-1627)와 프란시스코 테라사스 Francisco Terrazas(1525?-1600?)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발부에나는 페오끄리토 Teócrito와 비르질리우스 Virgilio를 모방하여 목가시를 썼고, 아리오스토 Ariosto를 모방하여 서사시를 썼다. 서사시 중 그의 대표작 『위대한 멕시코 La grandeza mexicana(1604)』에서 그는 태양이 지지 않는 스페인 제국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들에서 순수 자연과 선한 야만인이 문명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사상은 어디에서도 엿보이지 않으며, 단지 스페인의 영광이 중남미에 그들의 제도와 화려함을 가져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서사시를 쓴다는 것은 기나긴 식민 시기 동안에 가장 보편적인 작업이었으며 그 작업은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남미의 가장 뛰어난 서사시인은 끄리올요가 아닌 스페인인 알론소 데 에르실야 이 수니가 Alonso de Ercilla y Zúñiga(1533-1594)였다. 1569년, 1578년, 1589년 세 차례에 걸쳐 출판된 그의 시 『라 아라우카나 La araucana』는 칠레가 아라우카노 인디오 족과의 기나긴 싸움을 하는 동안 쓰여졌다. 이 작품은 낭만주의 시기에 알려져 유럽시에 선한 야만인이라는 주제에 대한 영감을 주었고 그 이전에 이미 중남미 작품의 모방의 기원이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모방작은 페드로 데 오냐 Pedro de Oña (Chile, 1570-1643?)의 『길들여진 아라우코인 Arauco domado(1596)』이다. 그러나 『라 아라우카나』와 그의 모방작 『길들여진 아라우코인』 작품 외에는 신세계와 이전 세계의 대립, 그리고 그 투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신화와 전설은 그 이후 신세계 문학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다. 정복에 관한 서사시는 항해 일지, 신대륙 발견 이야기, 보고서, 연대기 등과 같은 다른 형식으로 쓰여진다. 콜럼부스의 항해 일지와 에르난 코르테스의 『보고서』는 예술적 기교가 결여되어 있던

하지만 빠른 속도로 미지의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는 여행과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이며 이것은 중남미 문학의 신화적-시적 체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정복자들은 전설상의 영웅이 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꼬르떼스와 페루의 빠사로는 수적으로 우세한 세력과 자연의 무시무시한 위협과 대항하여 그로부터 영광스런 영예를 획득하게 된다. 정복기의 연대기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꼬르떼스 군대의 군인이었던 베르날 디아스 델 까스텔요 Bernal Díaz del Castillo(1492-1581?)의 『멕시코 정복에 대한 正史 (Historia verdadera de la conquista de la Nueva España(1632))』인데 이 작품의 모든 장면과 행위는 중남미 신화의 전형적인 모델을 형성한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꼬르떼스의 연인인 도냐 마리나 Doña Marina를 만나게 되는데 인디오들은 그녀를 말린체 Malinche라고 부른다. 오늘날 그녀는 스페인인들을 돕고 인디오들을 패배하게 한 배신자의 상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까스텔요의 작품을 통해 결코 들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작품 속에서 접할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는 역사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목메수마의 죽음, 멕시코에서 일어난 그의 아들 과우테목 Guauhtémoc의 사건, 페루에서의 아따우아이빠 Atahuaipa의 배신과 죽음 같은 사건들은 트로이 전쟁과 같이 풍부한 전설과 문학의 기원으로 변해 간다. 이러한 사건들이 중남미의 신화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17, 18세기 유럽의 수많은 희곡과 소설 작품의 주제로 사용되어진다.

베르날 디아스 델 까스텔요와 같은 17세기 연대기 작가로 페드로 시에사 데 레온 Pedro Cieza de León(1519 혹은 1522-1560), 아구스틴 데 사라떼 Agustín de Zárate (?- 1560 이후), 곤살로 히메네스 데 궤사다 Gonzalo Jiménez de Quesada(1499-1579), 가스파르 데 가르바할 Gaspar de Carvajal(1504-1584) 신부 그리고 인디오들에게 잡힌 포로담을 작품화한 『조난과 기록 Naufragios y comentarios』의 작가 알바르 누네스 까베사 데 바카 Alvar Núñez Cabeza de Vaca(1490?-1559)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시대 이러한 작가들과 이외의 많은 작가들은 신대륙에 관한 상상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그 당시까지 결여되어 있던 인종과 문화의 대립에 관해 주관적인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삶과 작품을 통해서 토착민과 스페인인들의 대립 요소를 극화한 16세기 작가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 Inca Garcilaso de la Vega(1539-1616)는 한 잉카 귀족女의 아들이자 스페인인 정복자의 후손으로 중남미 잉카 제국의 감동적인 기록물 『사실의 기록 Comentarios reales』을 발표한다. 1560년 잉카는 고향 꾸스꼬

를 떠나 스페인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아버지 가문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는 이태리의 新플라톤 주의자 레온 에브레오 León Hebreo의 『사랑의 대화 Diaroghi d'amore』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작품이다. 또한 1606년 『잉카의 플로리다 La Florida del Inca』를 출판하는데 이 작품은 플로리다를 발견한 에르난도 데 소토 Hernando de Soto의 모험담을 담고 있으며 풍부한 상상력으로 신대륙을 묘사한 그의 초기 작품이다. 또한 1609년에 출판되어 전 유럽에서 관심을 얻게 된 『잉카의 기원에 관한 사실의 기록 Comentarios reales que tratan del origen de los incas』, 그리고 1617년 『페루의 일반사 Historia general del Perú』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이 작품은 희곡, 소설 등 모든 장르에 <선한 야만인>이라는 주제를 제공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사실의 기록』은 잉카 제국의 풍습, 정치적·사회적 조직, 지식인의 삶, 잉카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으며, 잉카 문화의 귀중한 자료 특히 노래와 기도의 轉寫까지도 보존하고 있다. 그는 잉카 제국이 그리스, 로마 제국과 비교될 수 있으며 잉카의 종교는 유일신론에 가까웠기에 기독교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려 하였다. 그는 서구 기독교의 우월한 시각을 소유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의 어머니 종족의 문명을 당대의 어느 작가보다 폭 넓고 깊이 있게 소개하며 깨추아어 시를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모든 유럽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신앙심이 없고 야만스럽게 보는 페루 토착 문명에 대해 그 문명의 고귀함을 드러낸다.

잉카 가르실라소는 그의 작품을 통해 <선한 야만인>의 신화를 장려하면서 다른 작가로 하여금 또 다른 관점에 관심을 이끌게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가르실라소의 원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마르몽텔 Jean-Francois Marmontel의 잘 알려진 소설 『잉카인들 Les Incas(1777)』에서 인디오들은 가끔 타락의 희생물이 되기도 하지만, 탐욕스런 스페인인들의 세력 하에 있는 고귀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 작품에서는 유럽인과 원주민 그리고 그들의 혼혈인 새로운 인종형 메스티조의 출현을 시사하고 있다.

정복이 끝난 후 지식인들의 과업은 단지 글을 쓰는 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대륙의 다양하고 독특함을 적절한 형식으로 틀을 잡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가르실라소는 독자들에게 그가 묘사하는 풍습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풍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했다. 그는 <번개를 주피터의 무기나 도구로 여겼던 고대인들처럼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지적하면서 번개와 천둥에 대한 잉카인들의 태도에 대해 기술하였다. 한편 잉카인들이 직관적으로 이룩했던 것들을 이후 세

대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를 추진해 나아간다. 중남미의 새로운 소재를 전통적 인식 체계에 적용을 시도한 예수회 신부 호세 데 아코스타 José de Acosta(1539-1600)는 『아메리카의 윤리와 자연사 Historia natural y moral de las Indias』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그는 1570년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페루의 한 지방에서 살았으며, 1587년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멕시코를 방문한다. 호기심이 가득 찬 시와 고전 문학을 다루는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인 그는 실증주의 과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관심을 가진 문제는 신대륙에서의 그의 경험을 이미 그에게 익숙한 예수회의 가르침에 적용시키는 것이었다. 그 역시 가르실라소가 묘사하는 것처럼 대륙에 관한 직접적인 인식을 고집하였다. 많은 동시대 작가들처럼 이론에 기초하여 중남미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에 기초한 추론과 면밀한 관찰을 통해 중남미를 묘사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고대인들은 자석이 없어서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그들의 여행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메리카 인디오들은 이미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적도 지방이 쾌적하고 유쾌한 곳이라고 확인시켜 줌으로써 적도 지방은 적도가 가까이 있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추측한 이전 사람들의 헛된 주장을 폭로하였다. 또한 아코스타 신부는 아메리카 토착 인디오들의 긍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들이 단지 야만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부인하며 그들도 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의 국가와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취급한 정복자들의 탐욕과 타락을 한탄하고 있다.

como sin saber de esto entramos por la espada sin oírles ni entendreles, no nos parece que merecen reputación las cosas de los indios sino como de caza habida en el monte y trída para nuestro servicio y antojo. Los hombres más curiosos sabios que han penetrado y alcanzado sus secretos, su estilo y gobierno antiguo, muy de otra suerte lo juzgan, maravillándose que hubiese tanto orden u razón entre ellos.

또 다른 작품 『자연사 La Historia natural』에서는 신대륙에 관한 인식을 완벽히 재검열하며 이러한 인식을 통해 고대인들의 작품을 재인식하게 한다. 아코스타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아메리카의 발견이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디오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호감은 단지

그에게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예수회 선교사들도 개종자들과 행동을 같이했으며 점차 인디오 찬양자들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스페인 문화와의 갈등은 선교사들뿐 아니라 지적인 활동과 관계가 있던 모든 이들도 함께 겪었다. 그 누구도 식민 시기의 가장 뛰어난 인물, 멕시코 수녀 소르 화나 이네스 데 라 크루스 Sor Juana Inés de la Cruz(1648-1695)처럼 날카로운 방식으로 중남미의 모순을 고발하진 않았다. 여자라는 이유로 선택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다. 시대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아니면 종교적 삶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하였다. 유년시절 멕시코 부왕청에서 잠시 머문 후 그녀의 잘 알려진 편지 <소르 필로페아 데 라 크루스에 대한 답변 Respuesta a Sor Filotea de la Cruz(1691)>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듯이 수녀의 길을 선택하지만 수녀원 역시 그녀가 간구하는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삶 속에서 그녀는 모든 형식의 문학 형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갈등을 표현하기에 이른다. 시 분야에서는 로만세스 romances, 레돈딜야스 redondillas, 리라스 liras, 실바스 silvas, 빌란시스꼬스 villancicos, 철학적 성격을 지닌 『꿈 El sueño』같은 작품과 희곡 분야에서는 사이네떼스 sainetes, 로아스 loas, 아우토스 autos, 세속적인 희극 그리고 종교적 논쟁과 산문 작품들을 집필한다.

시인으로서 그녀는 서정적이라기보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시는 사색적인 경향을 띠며 지식인들이 갖는 지식에 대한 한계와 지식의 대한 끝없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로만세스 중 한 작품은 다음과 같은 시구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Aprendamos a ignorar,
pensamiento, pues hallamos
Que cuanto añadido al discurso,
Tanto le usurpo a los años.

그녀는 과학에 대해 그녀가 느끼는 열정적인 사랑과 모순 상태에 있는 듯한 감정을 지낸다. 로만세나 레돈딜야스의 몇몇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그녀의 이성적인 시각은 감정적 시각으로 확대되어 진다. 예를 들어 그녀는 사랑의 비이성적인 결과를 이성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에서는 사랑과 책임 사이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이성과 비이성 사이의 논쟁은 그녀가 선호하는 주제 중 하나로 종종 교묘한 유희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En dos partes dividida
 tengo el alma en confusión,
 una esclava a la pasión
 y otra a la razón medida.

소르 화나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꿈』에서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시는 비록 공고라 Góngora 작품을 모방하긴 했지만 공고라의 유연성과 감각성은 결여되어 있다. 꿈속에서 침체된 영혼의 시가 갖는 표현을 통해 시인은 꿈을 신비롭고 비이성적인 세계로 다가가는 그 어떤 것으로 보기보다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려 한다.

muerto a la vida y a la muerte vivo,
 de lo segundo dando tardas señas
 el del reloj humano
 vital volante que, si no con mano,
 con arterial concierto, unas pequeñas
 muestras, pulsando, manifiesta lento
 de su bien regulado movimiento.

소르 화나가 기교적인 세부 묘사에 지나치게 집착한 탓으로 그녀는 서정성과 시적 운율을 질식시키고 있다. <시계 reloj>, <생육성 vegetativo>, <동맥 arterial>, <운전대 volante> 같은 단어의 선택과 인간의 몸체에 부착된 정확한 기계에 대한 묘사는 시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증주의적 표현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그녀의 문학적 가치를 상실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녀 앞에 펼쳐진 가능성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적 호기심에 흥미를 갖고 헌신한 그녀의 독창적인 방식이 우리를 감탄케 한다.

한편 그녀는 동시대 스페인 희곡의 인습에서 결코 탈피하진 못했지만 많은 희곡작품을 발표한다. 특히 『가정의 의무 Los empeños de una casa』처럼 매우 날카롭고 독창적인 『난잡한 코메디 comedia de enredo』와 인간의 본성이 구원의 추구로 형상화되는 목가풍의 섬세한 『성스러운 나르시소 El divino Narciso』를 집필하였다.

동시대 작가로 소르 화나와 지적 호기심을 함께 공유한 절친한 친구 까를로스 시구엔사 이 공고라(1645-1700)는 다방면으로 뛰어난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인류학, 역사, 수학, 천문학, 당대의 저널리즘, 시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학문

에 전념하기에는 소르 화나보다 여건이 좋았지만 그 역시 식민 사회에서 삶의 통제를 받아야 했으며, 문명화된 교육의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입을 다문 영광 없는 뉴우튼 같은 운명을 지녀야 했다. 그는 예수회 선교사로 특수한 교육을 받은 후에 그 계율을 등지고 교단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인문학자로서 그의 중요한 의미는 총체적으로 평이한 그의 시 작품에 있다기보다는 그가 『알론소 라미레스의 불운 Los infortunios de Alonso Ramírez(1690)』을 쓴 최초의 멕시코 소설가라는 데에 있다.

소르 화나와 시구엔사 이 콩고라는 그들의 재능에 극히 제한된 지평만을 제공하는 지역 분위기에 의해 자신의 상상력이 갇힐 수밖에 없던 작가의 예를 보여준다. 그 시대 신대륙의 지식인들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작가들에 비해 지역적인 여건으로 모든 문학활동이 낙후된 도시문화에 의존해야 했다. 물론 식민지 사회가 그들의 창작 활동에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수도원들은 소르 화나나 그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뛰어난 서정 시인 프란시스코 호세파 델 카스텔요 게바라 Francisca Josefa del Castillo Guevara(1671-1742)수녀는 멕시코 수녀 소르 화나보다 뛰어난 학식을 지니고 있진 않았지만 종교적 시를 통해 그녀의 천부적인 서정적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적 사상적 보호를 받았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던 다른 부왕청은 비록 화려한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멕시코에 있는 부왕청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멕시코 부왕청에 비해서 더욱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리마의 작가들은 주로 그들의 독창성보다는 뛰어난 모방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진다. 환 데 에스페노사 메드라노 Juan de Espinosa Medrano (점박이 El Lunarejo, 1632-1688)는 그의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돈 루이스 데 콩고라를 향한 예찬 Apologético en favor de don Luis de Góngora』와 같은 과식주의 산문을 집필하였다. 또 다른 식민지 리마의 뛰어난 인물 중 한 사람인 페드로 데 페랄타 바르누에보 Pedro de Peralta Barnuevo(1663-1743)는 새로운 사상에 대해 멕시코 인물보다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는 다수의 희곡 작품을 발표했지만 오늘날 그는 그의 서사시 『건설된 리마 Lima fundada(1732)』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남미에서는 바로크의 경향이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조형 예술분야에서 그 특징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문학분야에서 억압된 인디오 인종이 결코 절대적 문화에서 배제될 수는 없었지만 메스티조, 인디오 작가들이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그 수가 수적으로 너무 적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가르실라소와 메드라노 같은 훌륭한 메스티조 작가들, 그리고 그 지역의 언어를 통해 문화와 시적 전통을 보존할 수 있었다. 케추아 문화에 관한 생생한 증거는 현대 학자들에 의해 수집된 시들뿐 아니라, 그 구조는 스페인적이지만 케추아어로 쓰여진 히브리 희곡 <올란파이Ollantay>에도 나타나 있다.

Detente no comas ya,
tuya, tuyita mía,
en el predio de la ñusta
tuya, tuyita mía.

No vayas a consumir
tuya, tuyita mía
todo el tendador maíz,
tuya, tuyita mía.

Está blanco aún el grano
tuya, tuyita mía
y muy tiernas las mazorcas,
tuya, tuyita mía.

Hay honda para el goloso
tuya, tuyita mía
y trampa habrá para tí,
tuya, tuyita mía.

기나긴 식민기동안 중남미에서의 기존 문화는 새로이 유입된 몇몇 활동적인 문화와 투쟁하였다. 주위 자연에 의해 결정되어진 인종의 혼혈, 시골 지역의 고립, 사회구조와 삶의 형식의 차이 그리고 소수 계몽인들의 산재된 도시로의 집중 등 이러한 모든 경향들은 두 극단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었다. 사회의 주요한 중심지역에 위치한 도시 문화는 유럽을 지향하며 유럽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영토와 맺고 있었던 관계에 비견할 만하다. 지방에서의 제도는 식민기 이전의 잉카 사회에 기원을 두고 있는 아일류 el ayllu(공동체), 정당한 필요시 언제든지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까시계 cacique(단체長) 등과 같은 보다 오래

된 사회 구조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원시적 조직은 왕권과 척무원이 형성하는 구조와 공존하였으며 제국의 이익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 내에서 유지되었다. 한편 이러한 지역에서의 문학은 사회구조만큼이나 고풍스러워졌다.

19세기 말 수필 『우리의 아메리카 Nuestra America』에서 호세 마르띠 José Martí는 이러한 두 문화 즉 자연적인 인간의 문화와 유입된 자유로운 문화를 분석하면서 그는 소수의 지식인들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역시 두 문화의 심연은 여전히 존재한다. 스페인 제국은 도시나 건축 등의 유형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중요한 자취를 남겼다. 스페인 언어와 전통은 중남미 문학의 토대가 되었지만 예술분야에서의 중남미적 경험과 예술상의 변형 사이의 동화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였다. 우리는 독립 운동 이후에 자신의 상상력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작가들의 투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한 정체성의 추구가 얼마나 급박한 일이었는지를 지켜보게 된다. 이러한 열망은 부분적으로나마 수필 분야를 통해 나타난다. 마르띠의 『우리의 아메리카』, 사르미엔토 Sarmiento의 『파꾼도 Facundo』, 20세기 멕시코의 알폰소 레제스 Alfonso Reyes와 옥파비오 빠스 Octavio Paz 혹은 아르헨티나의 에세깅 마르띠네스 에스뜨라다 Ezequiel Martínez Estrada의 수필 등에 이르기까지 정복과 식민화의 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시기에 나타난 기나긴 투쟁을 기술하고 있다.

문화적 독립은 그것이 스페인의 영향이었던 프랑스의 영향이었던 외부 영향 차원의 아니든 중남미 문학의 신화적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황금향 El dorado를 찾는 목적은 유럽의 팽창 대상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데에 있다. 유럽인들은 더이상 추구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중남미 세계를 끝이 없는 수평선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중남미 문학에서 여행 구조는 주된 구조 중의 하나로 변화되긴 하지만 이 여행은 순환하거나 실패하는 경향을 갖는다. 식민지에서 진보는 중단 없이 진행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많은 지식인들은 지난 과거를 지향하거나 지나간 황금기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인디오 신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비록 그들의 문화가 부분적으로 남아있거나 이미 파괴되기도 했지만 외진 지역에서는 그들의 언어와 신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베르나르디노 데 사 아군 Bernardino de Sahagún(1500-1590)은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 『멕시코의 사건에 대한 일반사 Historia general de las cosas de la Nueva España』를 통해 망각으로부터 인디오의 귀중한 지식들을 되찾고자 한다. 또한 독립 이후의 작가들은 정복 이전의 오염되지 않은 이런 순진한 다른 문화에 대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정복

기에 형성된 좌절된 여행, 인디오의 황금 시대, 엘도라도 신화 등은 독립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커다란 구조적 원형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유럽 문학의 잔재가 중남미 문학의 새로운 작품들에 편입되어 가는지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Jean Franco,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Mexico, 1981.
Picón Salas, Mariano, *De la conquista a la independencia; tres siglos de historia cultural hispanoamerican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63.

La Época colonial y su Literatura

Joong, Kim

En hispanoamérica, a lo largo de todo el período colonial hubo unas fuerzas activas que minaron o entraron en conflicto con la cultura importada. La mezcla de razas, el aislamiento de las zonas rurales, las diferentes formas de vida y de estructura social que estaban determinadas por la naturaleza del entorno, la concentración de las minorías ilustradas en enclaves urbanos dispersos, todos estos factores contribuyeron a la creación de dos culturas y a la pervivencia de estas dos culturas hasta nuestros días.

La cultura urbana, especialmente en los centros de mayor importancia, miraba hacia Europa; sus contactos con Europa eran tan intensos, si no más, que los que mantenía con los territorios circundantes.

En el campo perduraban estructuras sociales más antiguas: la hacienda feudal, la tribu nomada, la comunidad jesuítica, el ayllu o colectividad que tenía sus orígenes en la sociedad inca precolombina, cacique o jefe local que podía levantar un ejército de seguidores siempre que lo juzgase necesario. Estas organizaciones primitivas coexistían con la estructuras impuestas por la Corona y el Consejo de Indias, y no fueron suprimidas mientras no se opusieron a los intereses del imperio. Y en estas zonas la literatura tendía a ser tan arcaica como las estructuras sociales.

Y en la zona de la literatura la tradición españolas fueron los cimientos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Pero la simulación de la experiencia americana y su transmutación en arte fue una tarea mucho más difícil de lo que pareció en un principio. Porque la dependencia cultural no era tan sólo una cuestión de influencia, ya fuesen españolas o francesas. La dependencia se reflejó también en las estructuras míticas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Aunque su cultura sólo había sobrevivido fragmentariamente y había sido destruida, en zona apartadas existía aun una considerable pervivencia de lenguas y creencias.

El estudio de estos grandes patrones estructurales nos permitirá a menudo observar como los restos de la literatura europea se incorporaron a los nuevos productos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